

# 실크로드 주변의 민족복식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전북산업대학교

권현주

## 目 次

I. 序論	1. 위구르족의 복식
II. 少數民族의 歷史的 背景	2. 카자흐족의 복식
1. 위구르족	3. 키르기즈족의 복식
2. 카자흐족	4. 타지크족의 복식
3. 키르기즈족	
4. 타지크족	
III. 少數民族의 服飾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 I. 序論

실크로드는 太古이래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있었던 東西交通路의 雅稱으로 크게 3갈래로 나뉘는데 北方유라시아의 스텝지대를 횡단하는 스텝로, 中央아시아 사막지대의 오아시스를 이용하여 나아가는 길인 오아시스路, 이밖에 華南으로 부터 東南아시아, 실론(스리랑카), 인도를 거쳐 페르시아灣이나 紅海에 달하는 바다의 실크로드라 불리는 南海路가 있다.<sup>1)</sup> 이 중에도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길은 東·西투르키스탄의 사막을 지나는 오아시스路이다.

全行程의 거의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古來로 수많은 陸商들이 왕래하였고, 종교·복식문화 전파를 비롯하여 각지의 인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오아시스路上에서도 東투르키스탄의 대부분을 이루는 新疆위구르자치구는 중국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160㎢로 중국의 각 省 중에 가장 크며, 대략 중국 전체 면적의 1/6을 차지하는 곳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며, 역사상 유명한 실크로드를 이루는 중심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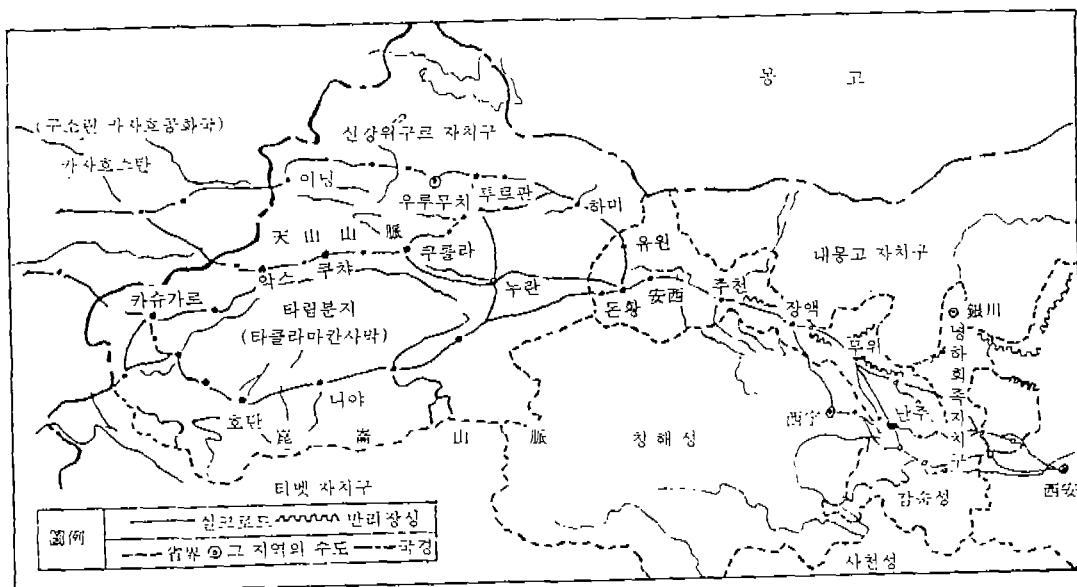
지형상 중앙에 타림분지(타클라마칸 사막)가 天山산맥과 崑崙산맥으로 둘러 쌓여 계란 형태로 되어 있다(그림 1).

신강위구르자치구에는 모두 47개의 민족이 있으며 그 중 주요민족은 위구르(維吾爾)·漢·카자흐(哈薩克)·回·蒙古·키르기즈(柯爾克孜)·시버(錫伯)·타지크(塔吉克)·滿·다우르(達斡爾)·우즈벡(烏孜別克)·타타르(塔塔爾)·러시아(俄羅斯) 등 13개 민족이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실크로드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

1) 長澤和俊 저, 閻丙勳 역, 「東西文化의 交流」, 民族文化社, 1991, pp.14~16.

2) 「中國·新疆」, 新疆人民出版社, 1991, p.1.



(그림 1) 신강위구르자치구

를 증진하고자 현재 신강위구르 자치구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中 庫 특징을 보이는 위구르족·카자흐족·키르기즈족·타지크족 등 4개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배경과 전통복식문화를 남녀복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신강지구의 소수민족들은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服飾文化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연환경과 종교·생활습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4개 민족의 服飾文化를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문헌자료 고찰과 더불어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개방이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중국文化 특히, 소수민족문화는 매우 생소하였고 번역에서 용어 사용에, 이로기까지 다소 문제점을 느끼며, 이에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보충해 가고자 한다.

## II. 少數民族의 歷史的 背景

### 1. 위구르(維吾爾, Uighur)족

위구르족은 新疆自治區의 주요 거주민으로 인구는 1990년에 약 7,214,431명 정도이다. '維吾爾'은 위구르족의 自稱이며, "단결", "연합"을 뜻한다. 주로 天山이 남에 모여살고, 伊犁 地區와 北疆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으며,<sup>3)</sup> 중국의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이다.

그 선조는 서기 4세기때에 漢文史籍기재 중에 "袁紇"이라고 칭해졌다. 그것은 高車의 일부분으로 漢北鄂爾渾河유역에서 유목하였다. 隋나라에 이르러 漢北<sup>4)</sup>에 "韋紇"(袁紇의 다른 해석)이 있고, 신강 북부에 "烏護"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唐代에는 "袁紇"은 또한 "回紇"이라고 해석했고, "烏護"는 "烏鵲"이라고 해석했으며 각각 동·서 돌궐汗國의 통치를 받았다.

3) 鄧佑玲 편저, 「民族風俗與生活趣談」, 今日中國出版社, 1992, pp.50~51.

4) 고비사막의 북쪽(외몽고를 가리킴)

744년 烏德鞬山에 회흘 왕국을 건립하였고, 唐朝에 예속되었다가 788년 回紇을 回鶻로 바꾸었으며, 서기 9세기 40년대에 回鶻汗國은 鮚戛斯可汗(군주)에 의해 타파되었다. 回鶻 부락은 대규모가 서쪽으로 옮겨 갔고, 중심은 신강으로 옮겨졌다. 回鶻은 옮긴 이후, 그 지방에 이전부터 있던 주민들과 함께 정착하였는데 유목에서 농업으로 전향하였으며, 장기간의 공동노동과 생활 중에서 점점 융합하여 뒤에 위구르족을 형성하였다.

위구르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가 있어서, 언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에 속하며, 문자는 아라비아 자모의 표음문자를 원래대로 사용하였고, 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라틴化新文字<sup>5)</sup>를 창조하였는데 현재 신·구문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sup>6)</sup>

위구르족은 歌舞에 능하였는데, 민족악기로는 켜고·불고·치는 악기 등 20여가지 이상이 있으며, 날렵하고 빠른 회전의 춤이 유명하다. 대체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도시와 농촌에 이슬람 사원이 널리 펴져있다.

## 2. 카자흐(哈薩克, Kazakh)족

카자흐의 뜻은 “피난자”, “이탈자”이며, 또한 “유리되어 고정적이지 않다”, “송리자”, “백조” 등의 뜻이라고도 한다.

인구는 약 1,111,718名(1990년)으로, 70%이상의 카자흐족이 신강의 이리카자흐자치주(伊犁哈薩克自治州)에 거주하며, 일부분은 바르콜카자흐자치현(巴里坤哈薩克自治縣)과 목루카자흐자치현(木壘哈薩克自治縣)에 거주한다.<sup>7)</sup>

카자흐족은 중국 多民族 중의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며, 역사상에서 보면 이리(伊犁) 골짜기와 중앙아시아 초원의 많은 부락과 부족에

거주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며 융합되어 이루어졌다.

즉, 최초의 핵심은 烏孫, 康居, 阿蘭 등의 부락 연맹으로, “烏孫故地”的 伊犁谷地와 七河平原은 카자흐족의 주요 발원지이다. 6세기 이후 돌궐이 흥기하자 烏孫故地는 西突厥의 중심이 되었다. 12세기에는 거란인이 서쪽으로 옮겨 갔고, 13세기에는 몽고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따라서 古突厥·거란·몽고 등과 같은 민족의 일부 부족과 부락은 카자흐를 이루는 구성성분이 되었다.

15세기 중기, 카자흐들은 楚河로 부터 텔라스 강(塔拉斯河)까지 옮겨 카자흐汗國의 지방정권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역사상 첫번째로 “카자흐”라는 명칭의 출현이다. 18세기 초에 일찌기 준가르(準噶爾)가 침입하여 서쪽으로 옮겨갔다가, 수십년 후 다시 되돌아 왔으며, 이리(伊犁)·알타이(阿勒泰)와 탑성(塔城) 등의 지역에서 방목하여 정착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에 속하며, 아라비아 자모를 기초로 하는 카자흐文字를 사용하였다.<sup>8)</sup>

이슬람교를 신봉하였으며, 카자흐에는 “당신이 태어날 때, 노랫소리가 당신을 위해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당신이 사망할 때, 노랫소리가 당신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음악과 춤을 좋아하였고 생활화 되어 있었다.

## 3. 키르키즈(柯爾克孜, Kirgiz)족

키르키즈족의 인구는 약 141,549名(1990년)으로 80% 이상이 신강위구르자치구의 키질스키르키즈(克孜勒蘇柯爾克孜)자치주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阿克蘇지구의 烏什현, 伊犁지구의 特克斯현, 塔城지구의 頡敏현 및 黑龍江省의 富裕현 등지에

5) ‘北方活拉丁化新文字’의 준말. 중국어를 표음하는 로마자. 그 방식은 병음법을 통속화하여 성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었음.

6) 劉先照·李輝輝 主編, 「中國少數民族地區旅遊大典」, 重慶出版社, 1992, pp.357~359.

7) 鄧佑玲 편저, 전계서, p.56.

8) 劉先照·李輝輝 主編, 전계서, pp.362~364.

거주한다.

“키르키즈”는 민족의 자칭으로, 그것은 “40명의 아가씨”, “40개의 부락”, “초원인” 등 여러 종류의 해석을 지닌다.

키르키즈족은 역사가 유구하여, 일찌기 2천여년 전에 중국의 史書 《사기》, 《한서》 중에 기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鬲昆”, “堅昆”라고 불렸다. 隋이전에는 “契骨”, “紇骨”이라고 불리웠고, 唐대에는 “黠戛斯”, “黠戛司”라고 불리었는데, 연경도독부에 예속되었다. 요·송대에는 “黠戛斯”라 불리었고, 원·명대에는 “乞兒吉斯”, “吉利吉斯”라 불리었으며, 청대에는 “부르트(布魯特)”라 불리었다. 그 조상은 최초로 아니塞河상류에 거주하였으며 후에 일부는 천산 지구로 옮겼다. 서기 9세기에 일찌기 지방 정권의 銀夏斯汗國을 건립하였으며, 10세기 중엽이후, 그 활동 중심이 점점 서부의 천산일대로 옮겨졌다. 키르키즈지역은 오랫동안 유목의 봉건사회에 처해 있어,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경영하였으며, 소수는 반농업·반목축 혹은 농업을 경영하였다.

키르키즈어는 알타이어계 돌궐어족 東句語 갈래에 속한다. 서기 7·8세기때 이미 古키르키즈文字를 사용하였는데 鄂爾渾·아니塞문자이다. 이후에 또한 아라비아·페르시아 자모를 기초로 한 차가타이(察哈台)문자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차가타이文字을 근거로 하여 키르키즈文字를 창조하였다.<sup>9)</sup>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었으나, 소수는 라마교와 샤머니즘을 신봉하였다. 역시 가무에 능하여서 노동후 여가시간이나 설·명절이 올때마다, 또한 각종 경사를 치를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였다.

#### 4. 타지크(塔吉克, Tajik)족

인구는 약33,538名(1990년)으로, 대부분 파미로 고원 동부의 신강 타슈쿠르간(塔什庫爾干)타지크자치현에 거주하며, 그 나머지는 남강의 莎車, 潘普, 叶城, 皮山 등지에 분포한다.<sup>10)</sup>

“타지크”는 민족 자칭으로 민간 전설에 의하면 “王冠”을 뜻하는데, 타지크의 종족 기원은 고대 파미르고원 동부에서 동부 이란어를 사용하는 많은 부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찌기 기원전에 그들은 이미 신강의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11세기때 돌궐 유목부락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란어를 말하고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을 “타지크”라고 불렀다. 이후 “타지크”는 점차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명칭이 되었다. 타지크족은 타지크어를 사용하였는데, 印歐어계 이란어족 파미르어 갈래에 속한다. 그러나 莎車 등지의 타지크족들은 보편적으로 위구르어와 위구르문자를 사용한다.

타지코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이스마이파(伊斯瑪儀派)를 믿었는데, 신강에서 유일하게 이교파를 믿는 민족이다. 종교활동은 비교적 적었으며, 이슬람사원 또한 매우 적었다. 교도들은 일반적으로 封齋<sup>11)</sup>를 하지 않았고, 참배(순례)하지 않았으며, 단지 경축일(명절)내의 예배활동만 거행하였다.<sup>12)</sup>

타지크족의 부녀자들은 편직과 자수에 능하였고, 그들이 짠 안장깔개, 달에 덮어 씌우는 천, 腰帶 등의 장식품에는 세밀하고 아름다운 도안이 있었고, 칼라·섶·주머니 등의 표면에 자수한 각종 문양이 독특한 민족적 특색을 지니며, 여러가지 수공예품이 유명하다.

9) 상제서, pp.369~370.

10) 鄧佑玲 편저, 전제서, p.70.

11) 封齋 : 회교도가 회교력 9월 한달동안 대낮에 단식하고 재계하는 것

12) 劉先照·李緯輝 主編, 전제서, p.373.

### III. 少數民族의 服飾

#### 1. 위구르족의 복식

##### 1) 남자복식

남자복식은 上衣(襯衣)·下衣(長褲)·外衣·腰巾·장화·少帽로 구성된다(그림 2참조). 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외衣인 長袍를 입는다. 셔츠는 앞가슴 부분까지만 트인 관두의형을 즐겨 입었으며, 칼라나 목둘레 트임 등에 차수 장식이 되어 있다.

長袍는 차반(袷袢)이라 칭하며,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유사한 형태이다. 무릎아래까지의 길이로 垂領이며 단추가 없다. 입을 때는 오른쪽 길이 위로 되게 좌임으로 여미고 장방형의 布(腰巾)로 허리를 묶고, 때로 좌측 허리에 小刀를 찼다.

袷袢은 여름철에는 홀으로 제작하여 입었고 겨울에는 솜으로 제작하여 입었는데, 노인의 솜袷袢은 대개 청색이었고 홀袷袢은 대개 흰색이었다. 중년의 것에는 커피색과 회색의 裳袢이 주로 입혀졌고, 청년의 것은 색채가 강렬하였는데, 대개 홍색·녹색의 바탕색에 백·황·흑색이 줄무늬져 있다.

袷袢은 일반적으로 모두 경사스러운 경축일과 휴일에 입었으며, 노인은 거리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 등에 裳袢을 입었는데, 이것이 예의라고 여겼다.<sup>13)</sup>

이러한 裳袢과 같은 카프탄형식의 앞이 전개된 長袍는 신강지구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카자흐·우즈벡·키르키즈·타지크민족들의 전통 남자복식이다.

위구르족 남자는 대개 허리에 하나의 腰巾 묶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裳袢에 묶으므로 단추와 호주머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腰巾의 길이는 다양해서 긴 것은 2m가 넘어 허리에서 몇번 휘감았고, 또한 사각형의 腰巾도 있는데, 이는 멜 때 허리에서 하나의 각을 드러내어 색다른 풍채를 지니게 해준다. 면 또는 실크를 주로 사용한다. 색은 검정·갈색·남색 등의 짙은 색으로 청년들의 것은 색채가 산뜻한데, 일반적으로 흰색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수와 날염이 되어 있다.<sup>14)</sup>

신발로는 가죽신을 즐겨 신었는데, 신발 겉에 덧신 즉, “套鞋”를 신는 습관이 매우 독특하다. 套鞋는 고무로 만들었고, 안에 댄 안감에 자홍색의 스웨이드가 있어 보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발을 보호해준다. 위구르족 남녀는 모두 套鞋를 신는 습관이 있으며, 특히 노인과 종교인사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종교인사들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예배할 때, 신을 벗어야 하는데, 밑이 부드러운 가죽장화를 신고 겉에 덧신을 더 신어, 겉의 덧신만 벗으면 곧 들어갈 수 있었다.

덧신을 신는 것은 좋은 위생습관으로, 이슬람



(그림 2) 위구르족 남자의 전통복식  
(『中國民族服飾』, p.84.)

13) 「中華民族風俗辭典」江西教育出版社, 1988, p.473.

14) 楊望曉 編, 「新疆民俗」新疆人民出版社, 1989, p.68.

사원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남의 집을 방문할 때, 套鞋를 문밖에서 벗고 집에 들어가면, 바깥의 진흙을 안으로 들여가지 않으므로 이러한 손님은 안심하고 집에 들어가며 주인도 좋아한다. 특히, 소수민족 집안에는 대개 응단과 담요가 깔려 있으며, 과거에는 손님이 오면 올라 앉기를 청하는 습관이 있는데, 만약 신을 벗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을 더럽힐 수 있고, 신발을 벗으면 문화적이지 않을 뿐더러 번거로우니, 套鞋가 이런 모순을 해결해 주었다.

현재는 위구르족 뿐만 아니라 기타 소수민족도 套鞋를 즐겨 신으며, 과거에는 금이 낫던 것이 여자들의 하이힐에 맞춰 금이 높은 套鞋도 출현하였다.<sup>15)</sup>

위구르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양을 수놓은 사각의 少帽를 썼는데 위구르 음역으로 “朵帕(杜帕, 多帕, 朵巴 : duopa)”이며 그 색과 도안이 다양하다(그림 3).<sup>16)</sup>

“朵帕”－花帽는 위구르족의 특색이 풍부한 모자로 이슬람교의 예절에 의하면 실외에서 머리에 이따한 가리개도 하지 않고 하늘을 대하는 경우 일종의 도독하는 행위가 되므로 외출 시 늘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3) 小花帽

花帽에는 “奇依曼朵帕”와 “巴旦姆朵帽” 2종류가 있는데 “奇依曼”은 많은 꽃 같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색채가 알록달록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花帽를 말한다. “奇依曼朵帕”는 색과 자수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화훼도안도 변화무쌍하였으며, 처녀·총각들이 그것을 쓰면, 오색찬란한 生花가 오아시스 대지에 가득 뿐여져 있는 것 같다고 한다.

“巴旦姆朵帽”는 맛이 대단히 좋은 편도와 연계되는 것이다. 매우 일찍부터 서아시아로부터 도입한 편도는 맛이 일반 살구와 다르며, 또한 사막지역에서 생명력이 매우旺盛하다고 하여, 초승달 같은 살구씨와 물결무늬를 도안한 것이다. 즉 흰색의 꽂고, 가늘고, 구불거리고, 끝은 점·선이 서로 결합하여, 사방에 잔잔한 물결과 투명하게 빛나는 물방울이 중앙의 편도씨를 둘러싸고 풀풀 흐르는 맑은 샘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과수를 기르는 것을 상상하게 해주는 문양의 少帽이다.

대체로 청년들은 화려한 “奇依曼朵帕”를 좋아하였고, 중년이상의 남자들은 대개 단아하고 수수한 “巴旦姆朵帽”를 즐기하였다.<sup>17)</sup>

花帽는 이렇게 위구르족 외에 카자흐·키르기즈·회족 등의 신장 소수민족들이 즐겨 착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두 흑백 견사나 색견사로 각종 민족 형식의 문양을 수놓았으며 花帽의 양식, 문양과 색은 민족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이도 있다.

## 2) 여자복식

여자복식에는 長外衣·短外衣·치마·원피스·바지·셔츠·조끼와 더불어 頭巾이나 花帽·面紗 등이 있으며, 대부분 花문양이 수놓여져 있다. 위구르족 부녀자들의 전통복식품들은 종류가 많으며, 수놓은 花문양 또한 풍부하고도 다채롭

15) 상계서, pp.69~70.

16) 「民族知識手冊」, 民族出版社, 1989. p.514.

17) 鄧佑玲 편저, 전계서, pp.51~52.

다. 그녀들의 옷감은 대개 布·綢·무명벨벳·금실벨벳 등을 사용하였고, 각종 의복의 깃, 앞가슴, 袖口, 어깨 등의 부위에 금·은실과 색실로 기하형 小花·小葉을 수놓아 위구르족의 강한 장식미감을 표현하였다(그림 4).



(그림 4) 화려한 桀袢  
(「中國・新疆」, p.145.)

長衿袢의 가슴부분에는 끌이 뾰족하게 대칭되어 7줄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남색주단의 소박한 도안이 있는데, 목둘레와 소매단 부분에도 같은 색비단으로된 단독의 테두리가 있다.<sup>18)</sup>



(그림 5) 直襟長褂  
(「中國・新疆」, p.145.)

위구르족 부녀자들의 복식 중에 호탄(于田), 민풍(民豐), 체르첸(且末) 일대의 부녀자들 복식은 독자적으로 한파를 형성하였다(그림 5, 6). 그녀들은 머리에 白紗頭巾을 걸쳤는데, 머리 우측에 단지 5, 6cm 높이에 직경이 10cm가 끊이는 “塔里亞拜克”(장식용의 小花帽 : 于田帽)을 쓴 것이다. 이러한 모자는 실용적으로 쓰이지는 않았고 일종의 장식품으로, 모자 꼭대기 부분은 천연색 주단으로 겉면을 만들고, 아래에는 羚皮(새끼양의 털가죽)로 테를 들었는데, 만든 것이 매우 정교하였다. 부녀자들은 이러한 모자를 頭巾의 우측에 달았는데, 가까이 보면 모자 같았고 멀리서 보면 마치 한송이 生花 같아서 매우 놀록하였다. 그녀들이 입은



(그림 6) 于田의 전통복장  
(「中國・新疆」, p.145.)

18) 「中國民族服飾」四川人民出版社, 1986, p.85.  
樓望唔 편, 전계서, pp.66~69.

長外衣는 옆이 트인 것과 마한 것으로 구분되며, 또한 垂領인 것과 竪領對襟인 것이 있다. 옆이 트인 것은 긴마고자 같다는 의미로 長褂로 써여진다. 이런 長袍는 현재는 별로 착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날에만 착용되는 것이다.

또한 위구르족 여성의 특징적인 복장은 원피스로 특히 艾得里斯綢(Atlas silk)로 만든 원피스를 즐겨입었다(그림 7, 8). 곁에는 자주색이나 짙은 남색·검정색 등의 수놓은 조끼를 입었다.

오늘날 여성들의 일반적인 복장은 통넓은 atlas silk의 전통 원피스와는 달리 타이트하여 몸의 윤곽을 드러내며, 화사한 단색의 합성섬유로 만든 현대적 감각의 원피스 차림도 눈에 띠는 반면, 바지·원피스·서양식 자켓의 구성이나, 스커트·블라우스·스타킹 차림 또는, 바지·원피스 차림, 바지·스커트·블라우스·서양식 자켓 차림 등의 구성으로 현대적인 원피스를 착용한 멋쟁이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스커트 속에 바지를 많이 벗쳐 입었으며, 바지를 입지 않은 경우는 불투명



(그림 7) 위구르 여성복  
〔中國民族服飾〕, p.85.)



(그림 8) Atlas Silk의 원피스  
〔中國民族服飾〕, p.86.)

한 스타킹을 두껍게 신고 있다. 또한 장식품을 좋아하여서 귀걸이·팔찌·목걸이는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으며, 위구르 여자복식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頭飾이였다.

과거에 미혼 소녀들은 모두 10여가닥으로 머리를 땋았으며, 긴머리를 美로 삼았다. 머리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涂發膠라는 것이 있는데, 發膠는 일종의 살구나무에서 채집하고 아울러 水泡로 만든 바르는 아교풀로, 신강의 농촌에 사는 위구르족 부녀자들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아교풀을 바르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먼저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 빗고, 땅은 연후에 작은 솔로 아교풀을 살살 고르게 머리 위에 발랐다. 아교풀을 바른 머리는 평평하고 윤기가 흘렀고,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머리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일을 할때 먼지가 파고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sup>19)</sup> 이러한 머리를 결혼 후에는 일반적으로 두가닥으로 바꾸어 땋았다.<sup>20)</sup> 땋고 난 끝 부분은 흐트러뜨리고 머리 위에는 초생달 모양의 빗을 꽂아 장식으로 삼았으며(그림 9), 또한 양쪽 머리

19) 「中華民族風俗辭典」, 전제서, p.481.

20) 楊國才·翼友德 편저, 「少數民族生活方式」, 甘肅科學技術出版社, 1990, pp.71~72.



(그림 9) 위구르 여성의 頭飾

를 둘둘 휘감아 쪽머리를 만든 것도 있었다.<sup>21)</sup> 초생달 모양의 빗은 장식효과도 있으며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도 해준다. 끓어 놀이거나 슬쩍 갑아올린 머리 등에는 頭巾·花帽·面紗 등을 쓰고 있다.

위구르족 남자들이 외출할 때를 비롯하여 일년 내내 모자를 쓴는데 비해 여자들은 頭巾(스카프)을 쓴다고 할 만큼 스카프는 현재 어린이에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넓게 비치는 나일론 명주와 면이나 모직, 기타 편직된 것이 있다. 대체로 어린이나 젊은 여성은 넓게 비치는 나일론 명주류로 빨강·노랑·연두 등의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는데, 특히 붉은 색을 즐겨하였고, 중년이상은 모직이나 편직으로 흰색이나 밤색류 등, 차분한 색상의 스카프를 주로 사용한다.

위구르 여성의 花帽 착용은 婚前과 婚後가 달랐는데, 婚前에는 일반적으로 융단도안으로 구성된 “吉連姆多帕”나 금사 융모 위에 작은 꽃을 수놓은 “杜哈瓦多帕”의 花帽를 주로 썼는데, 혼인한 후에는 이러한 花帽를 잘 쓰지 않았다.

중년여성과 知識人們들은 연록색 바탕에 작고 붉

은 문양의 “齊滿塔什干多帕”를 즐겨썼다. 가정이 비교적 부유한 부녀자들은 일종의 진주를 끼어 도안을 만든 “瑪江多帕”를 썼다. 이러한 花帽은 만든 것이 정교하고, 색이 아름답고 뛰어난 공예품이다.<sup>22)</sup>

또 다른 신강지역의 특색으로 위구르족 여성들이 머리에 面紗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그림 10), 이슬람교 규칙에 의하면 부녀자들은 손과 발을 제외하고 전신이 모두 부끄러운 몸이므로, 외출할 때 머리에 蓋頭 혹은 면사를 써야했다. 면사를 쓴 부녀자들은 대개 종교영향을 비교적 깊게 받거나 혹은 종교인사 가정의 부녀자들이다. 그들은 대개 집에만 틀어박혀 좀처럼 외출하지 않고 남이 함부로 엿보는 것은 싫어하였으며, 만약 남자가 낯선 여자의 얼굴을 엿보면, 곧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면사를 쓰는 것의 기원은 고대 아라비아일대에 風沙가 많아서 면사로 덮어쓰면 얼굴을 보호하고, 먼지를 방지할 수 있어 위생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림 10) 카슈가르의 면사쓴 여인들  
(「中國新疆·喀什噶爾」, p.32.)

21) 劉先照·李樟輝主編, 《新疆民族》, p.359.

22) 楼望曉編, 《新疆民族》, p.66.

고도 말한다. 이렇게 모슬렘(Moslem) 여성들이 쓴 면사와 盖頭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 품질 또한 다양하여서 면직물, 면·견 혼방직물, 견직물 등이 있으며, 색상은 커피색·검은색·회색·흰색 등이 있다. 그 크기와 규격 또한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허리 이상을 덮을 수 있으며, 큰것은 팔 아래 까지 덮을 수 있다. 위구르족 부녀자들이 면사를 쓰는 연령에 대해 일정한 규정은 없으나 빠르게는 10여세부터 시작하여 5·60세 까지도 쓰는 사람이 있다.<sup>23)</sup>

오늘날 카슈가르 동지의 위구르족 부녀자들 중에 면사를 쓰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지위가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남성들과 같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 하는데 대해, 면사 착용이 여성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신강지구를 여행 다닐때 간혹 면사를 덮어 쓴 여성을 볼 수 있었는데 차츰 서쪽으로 갈수록 많이 눈에 띠였고, 특히 중국의 가장 서쪽 도시인 카슈가르에서는 많이 볼 수 있었다. 카슈가르 바자르(시장)에서 구입한 양모로 짜여진 장방형의 커피색 면사는 쓰는 방법도 다양하였지만, 실제로 덮어 써보니 앞도 잘 보이고 매우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는 종교적 규칙하에 뜨거운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으로 그들의 면사를 쓰게된 필연적 이유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 2. 카자흐족의 복식

### 1) 남자복식

남자복식은 帽·上衣(셔츠)·下衣·長靴에 허리에 가죽띠를 매고 조끼를 덧입으며 겨울에는 長袍(외투)를 입는다(그림 11). 기본구성은 위구르



(그림 11) 카자흐족 남자복장  
(『中國民族服飾』, p.92.)

족과 별로 차이가 없으나 카자흐족의 의복과 장식은 목축생활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기마의 편리를 위해 복장이 일반적으로 넓고 튼튼하였으며 옷소매가 매우 길었다.

주로 가축의 毛皮로 옷을 만들었는데, 겨울에 주로 착용하는 양피 외투는 布面을 지나지 않은 것은 “托恩”이라 불렸고 布面을 지닌 것을 “衣希克”라고 불렸으며, 또한 낙타털로 안을 만든 것을 “庫普”라고 불렀다.<sup>24)</sup> 외투의 겉감은 대개 짐정색이나 짙은색의 帶布面 혹은 條絨面(코르덴)을 사용하였으며, 안에는 양털이나 낙타털 등의 모피를 대었는데 이런 외투는 가볍고 따뜻하며, 옷이 길고 소매가 길어 기마는 물론 차를 탈 때 추위를 막을 수 있다.

허리에는 금속 花紋 장식을 새긴 넓은 가죽띠를 매고 우측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小刀를 찼는데 이는 용맹스러워 보이며, 또한 수시로 고기를 잘라 석용하기에 편리한 것이었다.

23) 상계서, p.67.

24) 「民族知識手冊」, 전계서, p.445.

「中國少數民族藝術詞典」, 民族出版社, 1991, p.184.

카자흐족 남자들이 쓴 모자는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三叶帽와 四片瓦가 특징을 이룬다. 三叶帽(그림 12)는 겨울에 쓰는 모자로 紅·紫·黃色 등 색채가 산뜻하고 아름다운 주단으로 겉을 만들고, 안은 새끼 양가죽이나 여우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좌·우·뒤의 3면이 아래로 축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sup>25)</sup>



(그림 12) 三叶帽  
(『中國民族服飾』, p.95.)

四片瓦(그림 11)는 일종의 鈿帽로 네 조각의 흰색 모전(felt)조각으로 봉합하여 만들었으며, 모전조각이 서로 합쳐지는 곳에 겹은 면 플란넬로 장식을 가하니, 흰색과 대비를 이루어 4가닥의 눈에 확 뜨이는 선을 형성하였다. 모자안은 겹은 면 플란넬로 테를 둘렀으며, 모자 가장자리는 위로 조금 말아 올렸다. 모자 정수리는 대략 사각형을 나타낸다. 이 四片瓦는 날씨가 추울 때는 한기를 막을 수 있으며, 날씨가 더울 때는 태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카자흐족 남자 외에도 목축지역의 남자들은 모두 이 모자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sup>26)</sup>

이밖에 여름에는 머리위에 하나의 흰천수건을 간단히 묶기도 하였다. 신발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가죽장화 “賈色”을 즐겨 신었으며, 겨울철에는 모전으로 만든 양말을 신어 보온 하였다.

## 2) 여자복식

카자흐족의 여자들은 대개 원피스를 입었는데 둔양과 색깔이 있는 것으로 특히 붉은 색을 좋아했으며, 원피스 위에 조끼를 즐겨 입었다(그림 13). 날씨가 추울 때는 겉에 對襟 솜외투를 덧입었으며 나이가 적은 처녀들은 옷감에 수를 놓은 덧바지를 입었다.



(그림 13) 카자흐족의 여성복식  
(『中國民族服飾』, p.93.)

여자복식은 연령과 婚前·婚後 모두의 명확한 구별이 있는데, 결혼 전인 아가씨들은 대체로 굽고 아름답게 치장하였다. 즉, 자홍색의 원피스에서 양식 자켓 혹은 검정이나 자홍색의 조끼를 즐겨 입었으며, 조끼의 앞가슴부위는 채색된 단추, 은장식, 은화 등의 장식품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는데, 걷기 시작하면 굽고 낭랑한 소리가 나며, 정취가 흘러 넘쳤다. 또한 젊은 처녀들은 원형 花帽를 썼는데, 모자위에 구슬과 금·은 조각들이 가득

25) 『中國風俗辭典』, 上海辭典出版社, 1990, p.324.

26) 『中華民族風俗辭典』, 전계서, p.474.

장식되어 있으며, 모자 꼭대기에는 하나의 부엉이 깃털이 꽂혀 있는 데, 부엉이 깃털은 길한 물건으로 간주되었으며 아름다움과 동시에 용맹과 깃털 함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결혼전까지는 頭飾으로 부엉이 깃털을 꽂았다(그림 14, 15).

결혼후 부녀자들의 장식은 처녀들에 비해 다소 소박하지만 여전히 화려한 문양과 색깔이 있는 원피스와 조끼를 입었다. 그러나 가슴 앞에는 어떤 장식도 달지 않았다.

중년 이후가 되어서는 머리에 흰색의 頭巾을 썼는데, 얼굴을 밖에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목덜미



(그림 14) 카자흐족 女帽  
(『中國民族服飾』, p.94.)



(그림 15) 카자흐여성의 다양한 頭飾  
(『中國・新疆』, p.254.)

· 가슴앞 등에 모두 빈틈없이 가렸으며(그림 15), 길이가 말끔치에 이르렀다. 나이가 비교적 적은 부녀자들이 쓴 두건 위에는 문양이 수놓여져 있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문양을 수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카자흐족의 여성 옷차림에서 혼인의 여부와 연령을 분별해 낼 수 있게 된다.

### 3. 키르키즈족의 복식

#### 1) 남자복식

키르키즈족의 남자는 흰색의 圓領 셔츠를 입었는데, 깃불레와 앞트임 부분에 자수장식이 되어 있으며, 곁에는 깃이 없고 對襟인 짧은 상의를 끌겨 입는다(그림 16).

외투로는 양가죽이나 검정·남색 등의 면직물로 제작한 垂領의 “袷袢”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매으며, 이 허리띠에다 小刀 등을 찼다. 또한 베일러드 칼라등이 달린 현대식 모파외투를 입기도 한다.

下衣는 속에 裙褲를 입었으며, 절에는 布條絨이나 皮로 만든 통이 넓은 脚褲를 입었다.

목이 높은 靴를 신었으며, 때로 소가죽으로 밝



(그림 16) 키르키즈족의 남자복식  
(『中國民族服飾』, p.99.)

을 감싸는데 이는 신발을 대신한 것으로 “巧考依”鞋라고 칭했다.<sup>27)</sup>

남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4계절 내내 緑·紫·藍 혹은 黑色의 帽頂이 둥근 小帽를 썼으며, 외출시 곁에 帽頂이 높고 檻(차양)을 말아올린 皮帽 혹은 鈿帽을 덧썼다. 이런 모자의 정수리부분은 모두 方形을 나타낸다. 전자는 帽檐좌우에 각각 트임이 있고, 안에는 黑絨으로 테를 들려, 항상 밖으로 뒤집어 보였으며, 차양을 말아올린 모양을 나타냈다.<sup>28)</sup>

## 2) 여자복식

여자들은 대개가 紅色을 좋아하였고, 셔츠에 스커트 차림, 혹은 원피스 차림으로 곁에는 검정색 조끼를 즐겨 입으며, 외투를 껴입는다(그림 17, 18).

셔츠(襯衫)는 圓領이나 麵領이며, 조끼를 덧 입었는데 조끼는 목둘레가 커서 셔츠깃이 밖으로 드러났으며, 곁에는 외투를 껴입었다.

외투는 垂領의 補綉이거나 번령으로 대개가 검



(그림 17) 키르기즈족의 신부복  
('中國民族服飾', p.98.)



(그림 18) 키르기즈족 짚은 여성의 머리장식  
('中國·新疆', p.126.)

은색이며, 짚은 여성은 紅色이나 색있는 것도 착용하였고, 겨울철에는 안에 솜을 가하였다.

치마는 하단에 주름이 많았는데, 넓은띠를 사용하거나 견직물을 겹쳐 많은 주름을 만들었다. 원통형으로 만들어 상단은 허리에서 묶고 하단은



(그림 19) 나이든 여성의 머리장식  
('中國·新疆', p.113.)

27) 「民族知識手冊」, 전계서, pp.461~462.

28) 「中國少數民族藝術詞典」, 전계서, p.254.

모피로 테를 둘렀다.

젊은 여자들은 빨강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絲絨의 꼭대기가 둥근 小帽, 혹은 꼭대기에 구슬·술·깃털을 묶은 진홍색의 수달皮帽를 썼으며, 대개 빨강이나 녹색의 두건을 했다. 나이든 부녀자들은 흰색을 중시하였다(그림 19).

발에는 목이 긴 皮靴를 신었는데, 문양이 수놓여진 것도 있다.

여자들의 頭飾은 매우 복잡한데 미혼때에는 여려가닥으로 머리를 땋다가, 결혼후에는 2가닥으로 땋았으며, 땋은 머리는 수놓여진 가는 옷감으로 묶고, 끝부분은 은사슬이나 여러개의 은전·열쇠 등의 물건을 매달아 장식한다. 장식품은 대개 은제품이며, 팔찌·귀걸이·목걸이·반지 등이 있는데, 은제의 커다란 단추도 장식으로 쓰겨 사용하였으며, 특히 조끼 위에는 많은 것을 달아 장식의 효과를 높였다(그림 20).



(그림 20) 은제의 장식품들  
('中國·新疆', p.125.)

#### 4. 타지크족의 복식

##### 1) 남자복식

남자의 上衣는 관두의 형식의 흰색셔츠를 입는데, 圓領의 깃들레와 앞가슴 트임부분·소매부리 등에 자주 장식되어 있으며, 조끼를 쓰겨 입는다. 下衣로는 바지부리 양측이 터져 있는 긴바지(長庫)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腰巾을 맨다(그림 21).

겉에는 垂領의 긴외투, 補綻을 입으며, 겨울철에는 그위에 모피로 안을 맨 皮襖를 덧 입었다.

복장은 대개 청색, 백색과 남색 등의 짙은 색이며 주로 무지의 옷감을 사용하며, 허리 우측에는 小刀를 쳤다.<sup>29)</sup>



(그림 21) 타지크족의 남자복식  
('中國民族服飾', p.107.)

머리에는 일반적으로 黑絨의 높고 둥근 모자를 썼으며, 모자 위는 몇개의 잔잔한 무늬와 한줄의 넓고 긴 무늬가 수놓여 있고, 검은 어린 양가죽으로 모자 내부를 만들어 겨울과 여름에 모두 사용

29) 「民族知識手冊」, 전계서, p.498.

「中國少數民族藝術詞典」, 전계서, p.444.

劉先照·李樟輝主編, 전계서, p.375.

하였다. 평상시에는 모자 차양을 말아 올리고, 눈바람이 치는 날에는 아래로 늘어 뜨리며, 청소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흰색모자를 사용한다.

## 2) 여자복식

여자들은 上衣로 셔츠를 입고, 下衣로 부리가 좁은 꼭끼는 긴바지를 입었으며 겉에 원피스를 입는다(그림 22). 그 위에 검은 비로드 조끼를 덧 입었고, 기혼 여성은 미관과 치마를 보호하기 위해 서 항상 뒤허리에 “擺勒旦木齊(뒷치마)”를 매는 테 둔부를 전부 다 가렸고, 허리에는 무늬가 있는 짧고 폭이 좁은 요대를 매다. 날씨가 추울 때는 겉에 補綻을 께 입었다.<sup>30)</sup>



(그림 22) 타지크족의 여성복식  
(『中國民族服飾』, p.106.)

여자들의 복장은 색채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빨간색이 많았다.

머리에는 정수리가 둥글고 자수 놓여진 棉帽를 썼는데, 여자모자는 겹·솜의 구분이 있다. 겹모자는 대개 꼭대기가 평평하고 붉은 비로드제의 등



(그림 23) 타지크의 女帽  
(『中國民族服飾』, p.109.)

근 모자로 모자 가장자리에 수를 놓았으며, 이마 앞에 은사슬을 장식했다. 솜모자는 꼭대기가 평평하고 위에 각종 기하도안을 크로스 스티치하였다. 모자 뒤에 垂簾(늘어진 발)과 耳扇(방한모에서 두 귀를 덮는 부분)이 있어 추위를 막아준다(그림 23).

외출할 때는 모자 위에 큰 사각두건을 덧씌우는데 소녀는 황색, 신부는 흥색을 쓰며, 일반적으로는 흰색을 사용하였고, 검은색은 싫어하였다<sup>31)</sup>(그림 22).

머리는 대개 2가닥 이상으로 땋았으며 땋고 난 끝부분은 은실과 흥·녹색의 실로 장식하였다. 갓 결혼한 여성들은 4가닥으로 길게 땋았는데, 땋은 머리위에 모두 한줄의 흰색 단추나 은화를 달아 장식하였다(그림 24).

타지크 여성들은 장식을 좋아하여 모자 테두리에 한줄의 선명한 구슬과 작은 은사슬 달기를 좋아하였고, 목에는 구슬 목걸이를 몇줄이나 감고, 귀걸이나 원형의 은흉식·팔찌 등을 즐겨했다(그

30) 『中國服飾大辭典』, 전계서, p.229.

鄧佑玲 편저, 전계서, p.70.

31) 『中國少數民族藝術詞典』, 전계서, p.444.



(그림 24) 타지크족 여성의 頭飾  
(「中國・新疆」, p.180.)

립 25). 옷에도 치마단·목둘레·소맷부리 위에 아름다운 수를 놓았다.

남녀 모두 자수놓은 모전으로 만든 양말과 야생의 숯양가죽과 yak(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끝이 뾰족하고 밑이 부드러운 신발을 신었다.



(그림 25) 타지크 여성의 장식  
(「中國新疆・喀什噶爾」, 표지)

#### IV. 結論

실크로드 上의 위구르족·카자흐족·키르기즈족·타지크족의 服飾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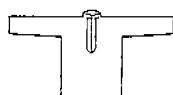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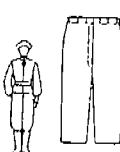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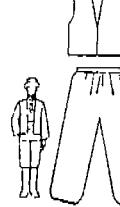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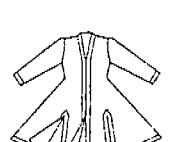
1. 위구르족 服飾의 특징은 다양한 문양의 少帽와 補衫, 색채대비가 강렬한 艾得里斯綢(Atlas Silk)를 들수 있다. 男子는 垂領의 补衫을 장방형의 腰巾으로 묶고 있다. 女子는 Atlas Silk로 된 원피스를 즐겨 입는다. 미혼때 10여가닥으로 땋았던 머리를 결혼 후에는 일반적으로 두가닥으로 땋으며 花帽나 스카프를 일년내내 착용하고 있다.

2. 카자흐족 복식의 특징은 기마의 편리를 위해 복장이 일반적으로 넓고 튼튼하며 옷소매가 길었고 三耳帽나 四片瓦가 특징을 이룬다. 女子는 원피스 위에 조끼를 즐겨입고, 조끼의 가슴앞에 장식을 많이 하였는데 결혼후에는 장식을 덜하며 중년 이후는 흰색 두건을 머리에 쓰고 목덜미, 가슴 앞까지 가렸다. 짧은 처녀들은 원형花帽에 부엉이깃털을 꽂았다.

3. 키르기즈족 男子는 圓領 셔츠에 짧은 上衣를 즐겨 입으며, 바지는 속에 襪褲를 입고 겉에는 가죽이나 布條絨으로 만든 통넓은 脚褲를 입었다. 女子는 대개 흥색을 좋아 했으며, 원피스 위에 조끼를 즐겨 입고 외투를 껴입는다. 頭飾이 매우 복잡하고 화려하며, 조끼 앞부분에 은제품의 많은 장식을 하였다.

4. 타지크족 복식의 특징으로 男子는 자수장식된 圓領셔츠에 조끼를 즐겨 입고 下衣로는 바지부리 양측이 터져 있는 長庫를 입었고 허리에는 腰巾을 매다. 머리에는 대개 黑絨의 높고 둥근 모자를 썼다. 女子는 바지에 원피스를 즐겨 입으며, 기혼여성은 미관과 치마 보호를 위해 항상 허리에 둔부를 다 가리는 뒷치마를 착용했다. 모자는 뒤와 양귀를 덮을 수 있는 부위가 달리고, 정수리가 둑글며 자수를 놓은 棉帽를 썼는데 외출때에는 모자위에 큰 사각두건을 더둘렀다. 일반적으로 땋은 머리에 장식을 하며, 갓 결혼한 여자는 4가닥으로

〈표 1〉 민족별 전통의상의 기본구조

종족 성별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타지크족
남 자 복 식	 	 	 	 
여 자 복 식	 	 	 	 

길게 땅아 모두 흰색단추나 온화를 달아 장식하였고, 모자에도 온사슬 등으로 장식을 한다.

민족별 전통의상의 기본구조는 〈표 1〉에서 보이듯이 큰 차이가 없었다. 男子는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로 바지와 관두의형 셔츠가 기본이 되며 그 위에 조끼나 자켓, 補袢을 덧 입는 것이 약간씩 다르며, 여자도 역시 원피스를 기본으로 하여 조끼나 外衣를 덧입는 형식으로 같은 구조이다.

그러나 少帽, 頭飾, 색채대비, 장식요소등에서 엄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자연환경·종교·생활습관 등이 유사하다는 점이 기본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의생활文化로 보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구별지으므로 그들 민족의 보수성을 나타내며 독자적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 参考文獻

- 長澤和後 저, 閔丙勳 역, 「東西文化의 交流」 서울 : 民族文化社, 1991.
- 華梅 저, 朴聖實 · 李秀雄 역, 「中國服飾史」 서울 : 경춘사, 1992.
- 鄧佑玲 編著, 「民族風俗與生活趣談」 北京 : 今日中國出版社, 1992.
- 樓望皓 編, 「新疆民俗」, 新疆人民出版社, 1989.
- 「民族知識手冊」, 民族出版社, 1989.
- 楊國才 · 翼友德 編著, 「少數民族 生活方式」蘭州 : 甘肅科學技術出版社, 1990.
- 劉先照 · 李樟輝 主編, 「中國少數民族地區旅遊大全」, 重慶出版社, 1992.
- 「中國民族服飾」, 四川人民出版社, 1986.

- 「中國服飾大辭典」，山西人民出版社，1992。
- 「中國少數民族藝術詞典」，民族出版社，1991。
- 「中國・新疆」，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1991。
- 「中國新疆・烏魯木齊」，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1989。
- 「中國新疆・喀什噶爾」，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1989。
- 「中國風俗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0。
- 「中華民族風俗辭典」，南昌：江西教育出版社，1988。
- 馬寅主編，「概設 中國の少數民族」，東京：三省堂，1987。
- 村松一弥著，「中國の少數民族—その歴史と文化および現況」，東京：毎日新聞社，昭和58年。

## ABSTRACT

Ethnic minorities' costumes in and around Silk Road  
—nationalities of the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Hyun Ju Kwon

The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to form the most of Eastern Turkistan is located at North-western part of China, and it is the center to form the famous silk-road histori-

cally.

In the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there are 47 nationalitie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studi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traditional culture about dress and ornaments of 4 nationalities (that is Uighur, Kazakh, Kirgiz, and Tajik).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

In the basic structure of traditional costume by races, there is not big difference. Then, in men, the trousers and the shirts of tunic type become the basis with the style which is convenient to act. And, to wear vest, or jacket, or chaban, over it makes a little difference. In women also, same structure shows with the form to wear vest or outerwear, on the basis of one piece.

But, in a small hat, head wear, color contrast, and decoration element etc., strict difference is showing.

After all, they show very simiar clothing life culture basically in natural environment, religion, and life habit etc. But, the discrimination is made in the detailed side. So, it can be said that they show the conservative nature of nationalities, and have preserved the unigue identity of their own culture.